



▶보성군이 산과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여름 휴양지로 초대한다. 사진은 왼쪽부터 제암산자연휴양림 물놀이장을 비롯한 야영장, 짚라인, 보성 울포해수욕장 전경. <보성군 제공>

“산과 바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최적 여름 휴양지 ‘보성’”

남해 청정수와 푸른 숲을 두루 갖춘 보성군이 아이와 함께 떠나는 여름 휴가를 추천한다. 16일 보성군에 따르면 군은 은빛 백사장과 소나무 숲이 한 데 어우러진 ‘울포솔밭해수욕장’, 피톤치드를 뿜어내는 편백숲, 모험·체험시설, 숙박 시설까지 갖춘 ‘제암산자연휴양림’, 차 이랑과 삼나무가 어울려 그림 같은 풍경을 빚어내는 ‘대한다원’까지 있어 한 번의 발품으로 다양한 여정을 꾸릴 수 있다. 최근 개장한 보성 울포솔밭해수욕장

은 울포해수욕장센터와 1.2km에 이르는 모래 해변, 시원한 송림,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갯벌을 자랑하고 있는 곳으로 오는 8월25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오는 8월16-17일까지 이틀간 ‘보성전어축제’가 개최된다. 싱싱한 활어 잡기, 갯 잡아 올린 전어를 맛볼 수 있는 전어 시식회 등 신나는 체험과 축화 공연들이 마련된다. 국내 유일의 차 관광농원인 ‘대한다원’은 약 165만㎡(60만평)에 이르는 초록 차밭으로 전국의 관광객을 불러 모

을포솔밭해수욕장·제암산자연휴양림 등 힐링 장소 제격 보성 전어축제·녹차향 가득 ‘뫼제’ 등 체험·전시도 다채롭다. 미국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관광지 50선’에 이름을 올렸고, ‘세계의 놀라운 풍경 31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보성에 왔다면 차향을 듬뿍 느낄 수 있는 보성녹차이스트림은 필수다. 대한다원에서 약 400m 거리에 위치한 차(茶)문화 복합 공간 ‘뫼제’는 보성차와 관련된 40여종의 음료를 판매하고 있다. 대한다원에 온 김에 ‘한국차박물관’도 둘러보자. 한국차박물관은 차 역사에 대한 관람뿐만 아니라 다례교육, 차 만들기 체험, 미디어아트, 3D 미디어 영상 등을 이용한 전시를 즐길 수 있다.

제암산자연휴양림도 빼놓을 수 없는 명소다. 160ha의 방대한 숲속에 편백나무, 고로쇠나무, 멸종 위기 2급 야생식물 대홍란 등의 멋진 숲이 펼쳐져 있어 피톤치드가 왕성하게 뿜어져 나온다.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계곡과 물놀이장 등 더위를 쫓을 만한 시설과 전용 캠핑과 스킨을 즐길 수 있는 체험 시설, 야영장 51개소, 48개의 숙박 시설까지 있는 게 많다. 또한 유모차나 휠체어를 타고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산악 데크길이 조성돼 있다. ‘더닐길’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제암산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5.8km의 편백나무 숲길로 계단이 없어 보행약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각각의 매력을 가진 보성군의 다양한 휴양 시설은 올해도 많은 피서객에게 사랑받으며 여름 휴양지 명소로서 보성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기자

순천시, 어르신들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구현 ‘박차’

순천형 AI반려로봇 보급 실시간 돌봄시스템 구축
치매노인 문제 선제 대응...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도

순천시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100세 고령친화도시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의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6월 말 기준 5만1천 815명, 시 전체 인구 대비 18.7%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순천시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AI를 도입한 돌봄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는 특화사업으로 어르신들의 품위 유지를 위해 80세 이상 1만3천702명에게 연 1만원의 건강바우처 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바우처는 관내 목욕 및 이·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순천형 어르신돌봄 추진으로 순천형 AI반려로봇을 200명에게 보급해 실시간 스마트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이 가능한 돌봄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독거 어르신들의 고립감 해소, 건강, 생활, 안전 등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용당·동부·남부 3개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이 어학, 정보화, 건강관리, 전통문화, 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강좌를 운영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65세 이상 남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건강한 밥



실시간 돌봄 시스템인 순천형 AI반려로봇을 들고 있는 어르신 모습. <순천시 제공>

상을 준비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좋은 건강 아버지 요리 교실’도 운영한다. 이 밖에도 서면 선평리에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순천시 북부 노인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복지타운은 치매요양시설과 노인복지관을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치매노인 문제에 선제 대응하고 노인 여가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100세 시대에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을 통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정기기자

여수시, 제주 국제크루즈 포럼서 유치활동

크루즈 선사 1대1 상담 등 여수항 기항 홍보 주력

여수시가 ‘최근 제11회 제주 국제크루즈 포럼’에 참가해 여수항을 홍보하고 국제 크루즈 유치 마케팅을 펼쳤다. 16일 밝혔다. 이 행사는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국제행사로, 아시아권 크루즈 산업 관계기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여수시는 국내 5대 크루즈 기항지(여수·부산·인천·제주·속초) 자격으로 참가, 여수항의 인프라와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크루즈 목적지로서의 전략과 방향성을 알렸다. 이번 행사에는 ‘로얄캐리비언 그룹’, ‘홀란드아메리카’, ‘MOL크루즈’ 등 글로벌 주요 선사 7곳과의 B2B 네트워킹 이벤트가 열렸으며, 여수시는 크루즈 선사와 1대1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국내 다른 기항지와 차별화된 여수항의 강점을 홍보하는데 집중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크루즈 산업은 국제적으로 도시 인지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라며 “한국 대표 해양관광도시로서 여수시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더 많은 크루즈 선이 여수항을 찾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장성군, 미래 농업 이끌 ‘청년 리더’ 뭉쳤다

‘제1회 전남 북부권 4-H 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장성군은 “최근 장성군을 비롯한 영광·함평·담양군 4-H 연합회가 장성군 민회관에서 ‘제1회 전남 북부권 4-H 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장성군 4-H 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단체 이념인 지(智), 덕(德), 노(勞), 체(體)를 바탕으로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젊은 청년 회원들의 화합과 농업정보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약 150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작된 대회에선 에어 봉 릴레이, 풍선 기둥 쌓기 등 다양한 종목이 진행됐다. 한편, 1958년 창립한 농업인 학습단 /장성=김문태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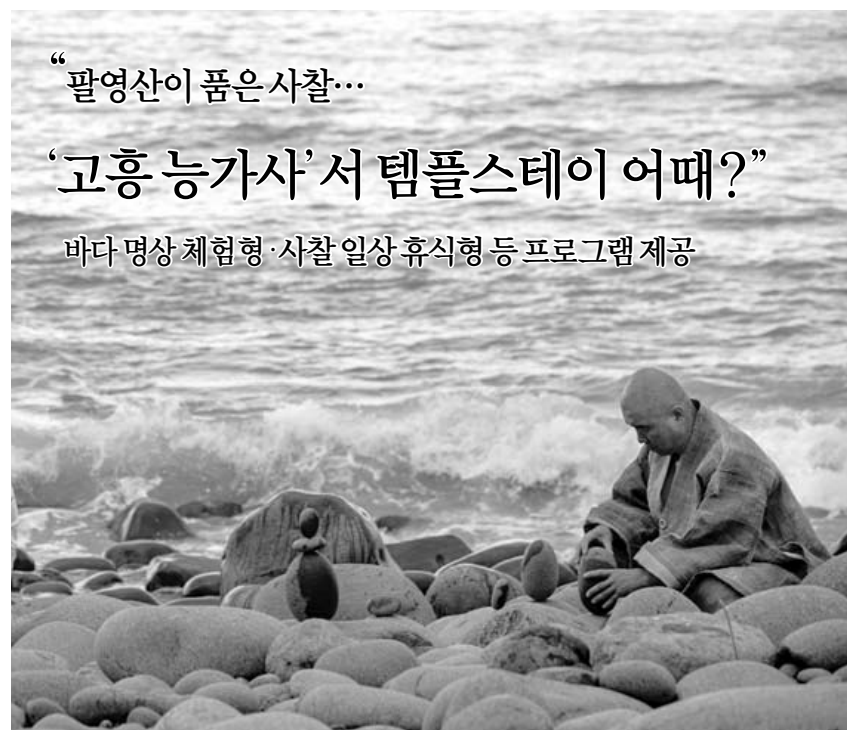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곡성군은 16일 “이달부터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을 중위 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곡성군민 중 60세 이상으로,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치매약을 복용 중인 사람이다. 단,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신청 방법은 치매 진단코드 및 치매 치료 약품명이 기재된 처방전,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곡성군 치매안심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번 소득기준 확대로 150여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돼 전체 치매환자 중 53%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치매안심센터(061-360-8883·8)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김영필기자

담양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0억9천만원 부과

담양군은 16일 “올해 주택·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30억9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중 주택분은 9억9천만원, 건물분은 21억9천만원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물 등의 소유자로 주택분의 경우 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 번 부과되며, 20만원 이상인 경우 전체 세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나눠 부과한다. 올해 재산세 건물

분은 21억9천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6% 증가했으며, 주택분은 9억9천만원으로 5% 증가했다.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주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담양=정승규기자



“팔영산이 품은 사찰... ‘고흥 능가사’서 템플스테이 어때?” 바다명상 체험형·사찰 일상 휴식형 등 프로그램 제공

고흥군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심신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편하고 조용하게 쉴 수 있는 능가사 템플스테이를 추천했다. 16일 고흥군에 따르면 푸른 자연이 살아 숨 쉬는 팔영산이 품은 고요한 산사 ‘능가사’는 고흥군 점암면에 자리잡고 있으며, 2018년부터 템플스테이 사찰로 지정돼 남쪽나라 바다명상 여행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능가사 템플스테이는 바다명상 여행을 주 테마로 하는 체험형과 사찰의 일상을 바탕으로 예불, 108배, 타종 체험, 명상, 스님과 함께하는 차담시간 등으로 구성된 휴식형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템플스테이는 1천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산사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경험하는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이다. 체험형은 고흥군 내 바닷가에서 동물을 이용해 명상을 진행하는 코스이며, 휴식형은 온전한 휴식 시간을 자연 속 사찰에서 보내며 사찰음식 체험도 할 수 있는 코스다. 이와 함께 사찰에서는 매년 진행 중인 해돋이 템플스테이와 당일형·단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세면도구, 여벌 옷, 개인 물병, 운동화(편한 신발) 등 준비물도 간단하다. 고흥군 관계자는 “점심 공양, 스님과의 차담, 편백숲 걷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능가사 템플스테이에서 올해 여름에는 바쁜 일상을 벗어나 자연에 몸을 맡기고 온전한 여유를 느껴보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고흥=최복환기자

